



胸腹에 관한 연구

이용철¹, 김병수¹, 강정수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 1: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

先人들은 인체를 관찰함에 먼저 파악해두어야 할 네가지 요건 즉 ‘四德’이라는 것을 제시하였는데 “天時氣候 人事環境 臟腑盛衰 神色脈象”이 그것이다.

人體는 臟腑를 中心으로 하고 天地의 變化에 恒時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人體를 봄에 經絡과 氣血의 運行을 通하여 體表, 五官, 四肢 等に 連繫되어 이루어진 하나의 有機的인 全體로, 外界環境과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外界環境에서 일어나는 모든 變化에 적응함으로써 정상적인 生理機能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胸腹은 五臟六腑를 宮城으로 營衛氣血의 發源地이며 동시에 또한 病邪가 쉽게 머무르고 연락되어지므로 胸腹部를 살펴야만 表裏와 臟腑의 虛實을 진단해 낼 수 있다. 흥복을 관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五運六氣의 변화로 만물이 生長化收藏하듯이 小宇宙인 人體도 五運六氣의 절대적 영향하의 五臟六腑에 의해서 精氣神 氣血骨肉이 나오고 이로 말미암아 動靜陰陽이 始生한다. 五臟六腑가 들어 있는 흥복은 단순한 형체로서의 의미가 아닌 생명의 始終을 나타내는 太極의 의미를 담고 있다.

五臟은 항상 속에 있지만 위로 七竅와 연관되어 있고 한 것과 같이 칠규뿐만 아니라 顔面望診部位와 臟腑圖사이의 五臟六腑의 配列을 보면 首와 腹은 아주 밀접한 관계, ‘乾爲首 坤爲腹’의 천지의 관계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天地人 三才의 觀點에서의 大腹 臍 小腹으로 나누어 보고, 人身之氣의 中心인 腎間動氣의 시작점 丹田을 함하여 삼현일장의 관점에서 볼 수 있고, 삼초로 표현됨을 흥복의 각 부위의 명칭과 역할, 장부, 경락, 모혈, 삼초를 통해 알 수 있었다.

각각의 임상응용을 통해 흥복의 다양한 접근방법, 즉 望으로 흥복의 기색·형상과 이를 통한 사람의 기질적 차이와, 切로 길이를 재고, 눌러보아 체질과 병증을 유추하는 방법 등으로, 사진합참을 한다.

觀이란 눈으로만 보는 것을 지칭하는 見과는 다르게,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보고 코로도 보고 입으로도 보고 형이상적으로도 보고 형이하적으로도 보고 내적으로도 보고 외적으로도 보고 정신적으로도 보고 육체적으로도 보고 안보는 것이 없이 다 보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다. 天地自然을 觀하듯 人體 또한 觀하는 자세와 四德과 四診合參의 방법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인신 小宇宙의 관점에서 五運六氣와 臟腑圖와의 연관성, 望聞問切 四診과의 관계에 대한 심층 연구가 더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중심어: 胸腹, 五臟六腑, 五運六氣, 臟腑圖